

김종철 초기시에 나타난 죽음의식 연구

전 철 희*

차 례

- | | |
|------------------------|-------------------|
| 1. 서론 | 3. 포용적 태도의 대두 |
| 2.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유로서의 죽음 | 4. 삶과 죽음의 현재적 내면화 |
| | 5.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김종철 시인의 초기 시세계에서 죽음관이 변모하는 양상을 고찰했다. 하이데거의 ‘죽음을 향한 존재(Sein-zum-Tode)’ 개념을 매개로 삼아, 시인이 마주한 현실과 그에 따른 실존적 응전 방식을 통시적으로 규명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김종철의 첫 시집 『서울의 유서』에서 죽음은 불모적 현실의 상징으로 기능한다. 시인은 근대화 중인 서울과 전쟁으로 황폐화된 베트남을 ‘병든 신체’ 혹은 ‘임종 앞의 환자’로 형상화하며, 죽음을 생명력과 생산성이 거세된 부정적 종말로 인식했다. 이 시집은 절대적 피안을 갈망하면서도 참담한 현실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초기 시인의 비극적 세계 인식을 반영한다. 두 번째 시집 『오이도』에서 죽음은 삶의 이면이자 조화의 대상으로 전이된다. 시인은 삶과 죽음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바다와 살아 있는 바다”가 공

* 대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강사

존하듯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한다. 이 시기 시인은 사랑과 이별, 탄생과 소멸을 자연스러운 유랑의 과정으로 수용하며,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삶의 유한성에 대한 성찰을 시도했다. 세 번째 시집 『오늘이 그날이다』에서 시인은 죽음을 현재로 내면화함으로써 주체적 실존을 완성한다. 과거와 미래를 ‘지금-시간(Jetzt-Zeit)’으로 통합한 시적 화자는, 고통과 슬픔이 수반된 일상의 나날을 온전히 껴안는 태도를 보여준다. 특히 ‘못’ 연작은 부정적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정체성의 일부로 수용하려는 실존적 결단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김종철의 시에서 죽음은 단순히 생물학적 종언을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타성적인 ‘세인(Das man)’의 삶을 거부하고, 자신의 유한성을 직시함으로써 ‘본래적 자아’를 구축해 나가는 실존적 투쟁의 표징이다. 비극적 현실 고발에서 시작된 그의 시적 여정은 죽음을 삶의 내부로 정초시키는 과정을 거쳐, 비로소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확립하고 있다.

주제어: 김종철, 죽음, 하이데거, 서정, 실존.

1. 서론

김종철은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한 시인이자 오랜 기간 한국문학에 기여한 출판인이었다. 그의 문학을 다룬 평론은 많지 않았다.¹⁾ 그나

1) 김종철은 전문출판인이자 한국시인협회 회장(1994) 등을 역임하면서 많은 문인들과 친교를 맺었고, 그래서인지 지인들이 남긴 김종철에 대한 인물평, 회고, 추도사 등이 여럿 남아 있다. 그런데 김종철의 작품을 다룬 평론은 많지 않았다. 아무래도 일상적인 발상과 형이상학적 사유가 결합한 그의 시가 한국 문학사의 주요한 흐름과 연결되어 평가받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껏 발표된 평론은 다음과 같다. 박호영, 「페로디를 통한 ‘성’ 문제의 탐구」, 『시와 시학』

마 시인의 사후에 발표된 2편의 학술논문²⁾과 5명이 쓴 “김종철 시인의 작품세계 총서”³⁾가 나오면서 그의 문학적 성취를 복기하려는 이론적 작업이 축적되는 중이다.

평자들은 김종철의 시가 ‘못’을 비롯한 일상적 사물에 천착하면서도 존재론적, 종교적인 사유로 나아간다는 점에 주목했다.⁴⁾ 이런 시풍은 김종철의 세 번째 시집 『오늘이 그날이다』⁵⁾에서 확립된 것이다. 이 시집에서 시작된 ‘못’ 연작이 시인의 노년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은, 그 무

22호, 시와시학사, 1996;공광규, 「김종철 시의 창작방법 연구」, 『유심』 25호,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24. 다른 한편 김종철이 ‘정지용문학상’을 수상했을 때 발간된 『시와 시학』 42호는 김종철 작가론 4개를 수록했는데, 그 평문들의 저자와 제목은 다음과 같다. 박호영, 「삶의 고뇌에 대한 질문에서 구도자적 명상까지」; 감태준, 「김종철에 관한 한 노트」; 이승원, 「우화적 상상력과 시의 진실」; 한명희, 「시인과의 아홉 시간, 그리고 아홉 가지 매력」.(94-163쪽)

2) 허혜정, 「김종철의 시세계와 ‘등신불’의 상징」, 『불교문예연구』 12권, 불교문예연구회, 2019, 359-84쪽; 김재홍, 「김종철 초기 시의 가톨릭 세계관에 대한 일고찰 - 「죽음의 둔주곡」과 「떠도는 섬」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86권,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21, 15-40쪽.

3) 전부 문학수첩에서 발간됐다. 저자와 서명 및 발행연도만 적어둔다. 김재홍, 『못의 사제, 김종철 시인』(2020); 장경렬, 『김종철 시인의 ‘언어 학교’를 찾아서』(2021); 이승원, 『못을 통한 존재탐구의 긴 여정』(2022); 김종희, 『삶과 못과 시의 변주곡』(2023); 유성호, 『김종철 시의 매혹』(2024).

4) 이승원은 김종철의 시가 일상적인 감각을 표현하면서도, 존재 탐구를 추구하는 한편, 깨달음과 초월의 지평을 지향했다고 평한다. 이승원, 앞의 책.

5) 많은 평자들이 김종철의 작품을 발표 시기에 따라 3기로 분류한다. 『서울의 유서』(한림출판사, 1975)와 『오이도』(문학세계사, 1984)가 초기, 『오늘이 그날이다』(청하, 1990)와 『못에 관한 명상』(시와시학사, 1992)과 『등신불 시편』(문학수첩, 2001)이 중기, 『어머니, 우리 어머니』(문학수첩, 2005)와 『못의 귀향』(시학, 2009)과 『못의 사회학』(문학수첩, 2013) 그리고 유고시집인 『절두산 부활의 집』(문학세계사, 2014)이 후기 시편으로 구별되는 경우가 많다. 평자들은 2,3번째 시집에서 그의 문학적 전기가 갱신된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가령 이승원은 김종철의 2-3번째 시집에서 “새로운 형식 탐구와 모색의 과정”이 전제된다고 봤다. 이승원, 앞의 책, 62쪽. 김종철의 초기시와 중기시를 나누는 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할 수는 없다. 다만 느슨하게 본다면 그의 초기 시(특히 첫 시집)에서 공격적인 어조가 드러나는 반면 3번째 시집에서는 성찰적 시각이 두드러지는데, 본고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계기를 나름의 방법론에 입각하여 평가하고자 했다.

렵 구축된 김종철의 문학적 지향이 지속되었음을 방증한다.

김종철의 첫 시집 『서울의 유서』(한림출판사, 1975)와 두 번째 시집 『오이도』(문학세계사, 1984)는 그런 성향이 정립되기 이전에 발표된 것들이다. 『서울의 유서』는 다소 거친 목소리로 부정적인 현실을 고발하는 비극적 논조의 작품이 많다.⁶⁾ 반면 『오이도』에서는 차분한 어투로 성찰적 인식을 드러낸 시편들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 3번째 시집 『오늘이 그날이다』는 일상적인 현실을 묘파하면서도 다소 형이상학적인 성찰을 드러낸 작품들이 늘어난다. 필자는 이상으로 언급한 김종철의 초기 시집들을 통시적으로 독해하고 시인의 문제의식이 형성/변화되는 양상을 복기하려 한다.

본고는 시인의 작품에서 ‘죽음’이 묘사되는 양상에 주목한다. 김종철은 죽음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거나 죽음에 대한 사유를 풀어낸 시편을 자주 발표했다. 그런데 죽음의 의미와 위상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거두절미하자면 『서울의 유서』에서 죽음이 부정적 현실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쓰이고, 『오이도』와 『오늘이 그날이다』에서는 죽음을 끌어안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이 변화는 김종철의 시적 행로를 설명하기 위한 단초가 될 만하다.

본고는 김종철의 시에서 ‘죽음’에 대한 사유가 변화된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하이데거의 철학을 참조하겠다. 죽음은 한 생명체의 삶이 끝나는 생물학적인 현상을 뜻한다. 따라서 생존본능이 존재하는 모든 동물은 죽음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언급조차 회피해왔고, 과거 일부 권력자들은 불로장생 내지는 영생을 꿈꿨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에 반해 하이데거는 “죽음”을 수용할 때 외려 더욱 가치 있는 삶이

6) 김종희는 『서울의 유서』에서 “젊은 날의 거칠고 황량한 내면 풍경”이 도드라진다고 평했으며, 유성호는 이 시집의 “둔주곡” 시편에서 발현되는 비극성을 강조했고, 장경렬은 여기에서 “아픔과 고뇌”가 드러난다고 지적한다. 김종희, 앞의 책, 19쪽; 유성호, 앞의 책, 21쪽; 장경렬, 앞의 책, 58쪽.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⁷⁾ 그에 따르면 인간(현존재, Dasein)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상황에 내던져진 ‘피투적 존재(Geworfenheit)’이고, 또한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세계-내-존재”⁸⁾이기도 하다. 세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형태의 삶을 살도록 유도한다.⁹⁾ 그래서 타성에 젖은 사람들은 세인(Das man)과 비슷한 존재가 되어간다. 사회의 규정을 벗어나서 자신의 독자성을 확립하려는 주체적 인간은 어딘가에 기투(Entwurf)해야 한다. 죽음에 대한 인식은 주체적 각성의 계기가 되어준다. 자신이 어떤 존재로 죽을지를 고민할 때 현존재는 남들과 다른 개별적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다. 이상으로 요약한 논지를 설파하며 하이데거는 인간이 “죽음을 향한 존재(Sein-zum-Tode)”가 되어야 한다는 충평을 내렸다.¹⁰⁾

7) 이하의 설명은 마르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의 죽음 관련된 논의를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8) 마르틴 하이데거, 이기상 역, 『존재와 시간』, 까치글방, 1998, 80쪽.

9) 가령 자본주의 체제(내지는 현재의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출세를 하다가 적당한 나이가 되면 제테크를 하고 결혼, 출산 등등을 하면서 ‘성공’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요받는다. 물론 저런 목표를 전부 이뤄낸 사람은 극소수이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은 저런 지향을 강요받고 있다. 비슷한 지향을 가진 사람들은 유사하게 살아갈 확률이 높다. 하이데거는 그런 상황을 경계하자고 제안하며 ‘죽음’에 대한 사유를 강조한 것이다.

10) 죽음을 생각할 때 더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발상은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라는 경구로 오래전부터 전해진 것이었고, 『이반 일리치의 죽음』(톨스토이) 같은 고전부터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미치 앨봄) 같은 비교적 최근의 베스트셀러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학작품이 다루는 고전적 주제이기도 하다. 죽음에 관한 논의가 많은데 본고가 하이데거의 철학을 논거로 삼은 것은, 그의 철학과 폴 리콥르의 보충적 논의가 김종철의 초기시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측면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해석은 본고의 본문에서 상술하겠다. 다른 한편, 허혜정의 논문은 김종철의 ‘등신불’ 시편을 분석한 논문에서 ‘죽음’에 대한 시인의 관념을 분석하는데, 필자 또한 이 논문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었다. 다만 허혜정의 논문은 중후기 작품에 대한 분석에 집중했는데, 본고는 김종철의 초기시부터 죽음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게 다뤄졌음을 규명하고 그 인식이 갖는 의미를 복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허혜정, 앞의 글 참조.

본고는 하이데거의 철학적 통찰을 기반으로 삼아 김종철의 초기시에서 죽음에 대한 포용적 사유가 발전되는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본고의 본문은 3개의 챕터로 나뉜다. 각각의 장은 김종철이 초기에 출간한 3개의 시집을 차례로 다룰 것이다.

2.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유로서의 죽음

김종철은 196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다. 그의 등단작 「재봉」은 “아내”의 나라를 탐미적이라고 할 만큼 아름답게 묘사한 작품이었다.¹¹⁾ 작중 “아내의 나라”는 화자의 아내가 살아왔던 세상을 미화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작품의 상징적 어휘들로 볼 때 성모(聖母)가 머무는 천상의 세계를 지칭했을 확률이 높다. 어떻게 해석하든 시인은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갈망을 유려하게 표현해내는 재능을 확실히 증명하는 등단작이었다고 할 만하다.

등단작에서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동경을 아름답게 표현했던 시인은, 이후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을 담은 작품을 다수 발표했다. 김종철의 첫 시집 『서울의 유서』가 직접적으로 고발하는 대상은 한국의 수도 서울이다. 시인은 서울을 낙태 수술을 한 후 생산성을 잃은 존재(「서울의 불임」)라고 지칭하는 한편, “도시의 흉터”가 남아 있는 “황폐한 들판”으로 묘사하기도 한다.(「서울둔주곡」) 그리고 이 시집의 표제작 「서울의 유서」는 서울을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 비유했다.

서울은 폐를 앓고 있다/도착증의 언어들은/곳곳에서 서울의 구강을
물들이고/완성되지 못한 소시민의/별판들이 시름시름 앓아누웠다/눈물

11) 유성호, 앞의 책, 22쪽. 한편 이승원은 이 작품이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몽환적 동경을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승원, 앞의 책, 29-40쪽.

과 비탄의 금속성들은/더욱 두꺼워 가고/병든 시간의 앞들 위에/가난한
집들이 서고 허물어지고/오오, 집집마다 믿음의 우물물은/바짝바짝 메
마르고/우리는 죽음의 열쇠를 지니고 다녔다

「서울의 유서」 부분¹²⁾

서울의 거주민들은 “도착증의 언어”를 쓰고, “완성되지 못한 소시민”들이 병중에 시달리며, “믿음의 우물물은 바짝바짝 메마”른 상황이 되었음을 일갈하는 대목이다.

이때 주목할 것은 쇠락한 서울이 죽어가는 신체로 의인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비유에서 죽음은 생산성과 활기가 사라진 부정적인 상태로 전제되어 있다. 죽음은 생생하던 유기체의 활기가 종료되는 상황을 뜻하니 이런 표현과 발상이 어색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무렵 그는 베트남 파병 경험을 바탕으로 월남전에 관한 작품을 다수 발표했다. 『서울의 유서』의 권두에 수록된 장시 「죽음의 둔주곡-나는 베트남에 가서 인간의 신음소리를 더 똑똑히 들었다」(이하 「죽음의 둔주곡」으로 약칭)가 대표적이다. 이 작품은 베트남전을 소재로 삼아 반전(反戰) 의식을 담아낸 매우 드문 시편 중 하나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미를 갖는다.¹³⁾ 다만 본고의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이 작품 또한 ‘죽음’을 부정적인 상징으로 차용한다는 사실에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9개의 곡(曲, Chapter)으로 나뉜 대작 「죽음의 둔주곡」은, 베트남의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민중의 삶을 꺾진하게 묘사하지는 않지만, 부정적 현실을 암시하는 다양한 이미지를 병치하여 월남전을 환기한다. 작품의 앞부분에서 베트남은 “벌거벗은 땅”과 “죽음의 처녀성”으로 표상된다(1곡). 이후 화자는 “이별”과 “바다의 상처”

12) 김종철, 『김종철 시전집』, 문학수첩, 2016, 69쪽. 본고에서 김종철의 시를 인용한 부분은 전부 이 시전집을 참조했다. 이하 출처는 기입을 생략하고 쪽수만 병기하겠다.

13) 유성호, 앞의 책, 37쪽.

에 대해 언급(2곡)하고, 또한 이방인이 베트남에서 느낄법한 상념을 정리(4-5곡)한다. 한편 3곡 이후에는 청년과 어머니가 이별하는 장면이 파편적 몽타주로 제시되어 있다. 월남전 때문에 헤어진 가족은 베트남과 한국 양쪽에 많았을 것이니 그들의 마음을 애절하게 보여준 대목으로 이해할 만하다. 그러다가 작품의 말미인 8-9곡에 이르면, 신실한 인간과 절대자가 나누는 문답이 제시된다. 8곡은 신실한 인간을 초점화하는데, 그는 “나의 아들이”라는 부름을 듣고서도 베트남의 현실 때문에 절망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대한 절대자의 응답은 9곡에서 이어진다. 불가해한 현실에 절망한 인간에게 야훼가 답하는 모습을 그린 성경의 「욥기 (the book of job)」를 방불케 하는 대목이라고 할 만하다. 「죽음의 둔주곡」 9곡의 일부를 인용해 본다.

아브라함의 땅도 이미 떠났다/별거벗은 땅이여(...)/오오 땅의 자손들이여/너희들의 날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두 개의 죽음 사이에/몸을 굽히고/모든 상처에 지친/땅의 노예들이여/너희들의 날에는 아무도 기다려 주지 않는다.

「죽음의 둔주곡」 부분¹⁴⁾

절대자는 “아브라함의 땅”이라고 불릴 수 있는 가나안이 멸망했고, 지금-여기의 현실(전쟁 중인 베트남 내지는 그 전쟁을 조장한 1960년대의 세계질서)은 불모의 공간으로 전락했다고 진단한다. 인용문의 “두 죽음 사이”란 자구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육신의 죽음과 별개로 영혼이 천국에 가는 일을 죽음이라고 칭하는 천주교의 관행을 고려할 때, 이는 전쟁 피해자의 혼백이 사후세계로 당도하진 못한 상태를 의미할지도 모른다. 또한 베트남 민중은 아직 생물학적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한 산주검(homo-sacer)이고, 베트남 자체가 죽어가는 신체에 비유되어야 할 만큼

14) 김중철, 앞의 책, 56-57쪽.

영망인 상황이니, 베트남을 죽음에 근접한 수라장이라고 표현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힘들다. 시인이 무엇을 생각하며 쓴 표현인지를 특정할 순 없지만, 어느 경우이든 이 작품이 절망적인 현실을 “죽음”에 비유한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해 보인다.

이 작품은 성스러운 세계를 갈망하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며 시작한다. 그러나 뒷부분에서는 세상은 너무나 절망적인 곳이고 절대자조차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간절한 바람은 이뤄질 가망이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 작품은 시인이 성스러운 피안에 대한 염원을 그려낸 등단작 「재봉」의 문제의식을 버리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한편, 그 바람이 실현될 수 없는 불모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우세해졌다는 점을 암시한다.¹⁵⁾

다른 한편 이때 김종철의 작품에서 ‘죽음’은 싱그러운 생산성을 잃고 그저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엄혹한 현실을 지칭하기 위한 이미지에 불과했다. 그의 사유가 변화한 궤적을 살피려면 두 번째 시집 이후 죽음의 표현 양상이 달라진 양상에 주목해야 한다.

3. 포용적 태도의 대두

김종철의 두 번째 시집 『오이도』는 3개의 파트로 나뉜 시집이고, 각 파트의 제목은 <떠도는 섬>,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가을가출>이다. <떠도는 섬>은 서문에 가까운 장시 「떠도는 섬」과 7개의

15) 『서울의 유서』가 이상적 세상에 대한 열망을 도저히 표현하면서도 또한 방황하는 청춘의 고뇌와 아픔을 담아낸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평자들도 지적해 왔다. 가령 장경렬은 이 시집이 “아픔과 고뇌”를 전면화할지언정, 여전히 시인은 “사랑”을 지향한다고 평했다. 장경렬, 앞의 책, 58-71쪽. 그리고 유성호는 이 시집에서 ‘재봉’의 성스러움과 ‘둔주곡’의 비극성이 공존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유성호, 앞의 책, 43쪽.

「오이도」 연작시로 이뤄져 있고, 뒤의 두 파트는 일상적인 경험을 쉬운 언어로 풀어낸 시편들이 다수이다. 이 시집의 고유한 문체의식은 <떠도는 섬> 파트에 집약되어 있다. 해당 파트의 서곡을 여는 장시 「떠도는 섬」을 살펴보자.

「떠도는 섬」은 반말과 존댓말을 교차로 제시하는 작품이다. 반말은 절대자 내지는 신의 목소리를 표상하고, 존댓말은 고독한 절망에 빠진 인간은 언어로 보인다. 11개의 절(chapter)로 구성된 이 작품은 절대자의 목소리로 시작하며 5번씩 대화를 교차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절대자의 목소리로 끝맺는 형식이다.

시편의 서두에서 절대자는 이렇게 운을 띄운다. “죽어 있는 바다와 살아 있는 바다/오오, 버림받은 자는 그의 눈물의 짐을/타락한 자는 그의 절망의 닻을/내려놓는 이 섬에/한 낮선 배가 새벽안개를 거두며/이 섬이 깨어날 시각에 당도하도다”(127면) 바다가 “죽어 있는” 곳과 “살아 있는” 곳으로 나뉜다는 발상은 신선하다. 상기했듯 『서울의 유서』는 “죽음”에 임박한 세상을 부정적으로 고발하는 논조였다. 죽음과 삶이 자연스럽게 교차하는 풍경을 고즈넉하게 그려낸 「떠도는 섬」은 분명 변화가 있는 셈이다. 일단은 여기까지 지적하고, 작중 존댓말을 하는 인간의 소회가 담긴 대목을 살펴보자.

땅의 상처가 퍼렇게 드러난 한 미래의 도시가/빈민가 아이처럼 웅크리고 있는 걸 보았고/서로 다투며 눈물을 흘리는 걸 보았습니다/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큰 탓이로소이다/그 밤 그 시간의 상처를 씻겨 준 교회는/물레 하나씩 더 늘어나고/풀숲의 달팽이는 더욱 단단한 껍질 속에 몸을 숨기고/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이 풀잎의 도시에/더욱 단단한 철근과 시멘트의 껍질이/우리 등에 붙어 있는 것을/서로 확인하고 감사합니다/도시 뒤에 있는 도시,/도시라는 풀잎의 씨만/가진 도시, 아무도 지키는 이 없는 도시

「떠도는 섬」 부분16)

이어서 화자는 자신이 가난한 동네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129면), 자신의 “형님”은 “가난한 용접공”(134면)이었음을 밝힌다. 이는 한국 사회의 어디에서나 있을 법한 민중을 상징하는 특징들이다.¹⁷⁾ 그 ‘민중’은 척박한 환경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불쌍한 이들에 대해 연민할 줄 아는 선량한 마음을 지녔다. 그런 이에게 세상살이가 녹녹할 리는 없다. 그는 불가해한 현실 속에서 자신이 “세상 머무는 법을 잠시 배우다 보니 되돌아갈 수 없게 되었”으며 “오르지 못하는 이치만 깨닫다 보니 이제는 바다도 시내도 보이지 않습니다”(136면)라고 한탄한다. 이에 절대자는 더 나은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찬 답변을 건넨다. 든가 인생은 본래 힘든 것이니 순응하라고 위로하는 대신, 다소 함축적인 잠언으로 응수한다.

누가 저 낮선 배를 오래도록 묶어 두려 하느냐/누가 저 낮선 배를 사람의 혼으로 떠들게 하느냐/저문 꿈의 눈썹 하나는 일어서고/다시 버려 두고 온 잠을 설친 섬들아/그대들의 여러 날 가운데 단 하루를/저 낮선 배는 이승의 흰 돛을 울리며 실어 나르는구나(...)/이제 바람이 불고 또 바람이 불면/죽어 있는 바다와 살아 있는 바다가/나란히 함께 길을 떠나리라/오, 누가 그대들에게 저 낮선 배가/그대들 이승의 밤과 낮이라고 말하겠는가

「떠도는 섬」 부분¹⁸⁾

다시금 절대자는 “죽어 있는 바다와 살아 있는 바다”가 공존하는 풍

16) 김종철, 앞의 책, 129쪽.

17) 이 대목이 시인의 자전적인 경험이라든가 주변 사람의 사연을 묘사한 것으로 추측할 단서는 별로 없다. 김종철은 오이도에서 거주하거나 지인과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외롭고 추운 마음을 안고 한 번씩 자신으로부터 외출을 하고 싶을 때 찾아가는 섬”에 불과하다고 『오이도』의 서문에서 밝혔다. 따라서 이 대목은, 그냥 오이도를 비롯한 한국의 어느 곳에서든 존재하는 민중의 모습을 그려낸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김종철, 앞의 책, 123쪽.

18) 김종철, 앞의 책, 140쪽.

경을 묘사하고, 그 사이를 교차하는 “낮선 배”의 모습을 서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현실에 절망한 민중 앞에서 절대자가 죽음과 삶의 인접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작품은 그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인식이 만들어낸 메시지는 쉽게 포착된다. 인용한 작품에서 ‘민중’은 부정적 상황에 던져져 있다. 그의 삶은 불우했던 듯하고 앞으로 나아지리라는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절대자는 ‘죽음’으로 상징되는 부정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라고 답했다. 그 말은 탐탁지 않은 모든 현실까지 수용하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불우한 민중의 삶을 둘러싼 세계(오이도)를 서정적인 공간으로 묘사한 장시 「떠도는 섬」의 뒤에는 비슷한 문제의식을 담아낸 「오이도」 연작이 배치되어 있다. 이 연작은 불행할 법한 상황에 놓인 민중의 삶을 소재로 삼는데, 시인은 그들의 삶이 “죽음”(으로 표상되는 부정적인 상황)에 연루된 것으로 묘사하면서도 따뜻한 필치를 지니고 있다. 연작의 후반부에 배치된 몇몇 작품은 힘겨운 현실 속에서 더욱 풍부한 삶이 생겨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데,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가 그런 경우이다.

내 고향 한 늙은 미루나무를 만나거든/나도 사랑을 보았으므로/그대 처럼 하루하루 몸이 벗겨져 나가/삶을 얻지 못하는 병을 앓고 있다고 일러주오/내 고향 잠들지 못하는 철새를 만나거든/나도 날마다 해뜨는 곳에서/해지는 곳으로 집을 옮겨 지으며/눈물 감추는 법을 알게 되었다고 일러주오/내 고향 저녁 바다 안고 돌아오는 뱃사람을 만나거든/내가 낳은 자식에게도 바다로 가는 길과/썰물로 드러난 갯벌의 비애를 가르치리라고 일러주오(중략)내 고향 떠도는 낮선 죽음을 만나거든/나를 닮은 한 낮선 죽음을 만나거든/나의 땅에 죽은 것까지 다 내어놓고/물 없이 만나는 떠돌이 바다의 일박까지 다 내어놓고/이별 이별 이별의 힘까지 다 내어놓고/자주 길을 잃는 이 젊은 유랑의 슬픔을/잊지 말아 달라고 일러 주오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으로」 전문¹⁹⁾

작중 화자는 자신이 “사랑을 보았”던 사람이기에 “삶을 얻지 못하는 병을 앓”게 되었다고 말한다. 사랑이 삶을 더욱 고독하게 만든다는 역설은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하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대상과의 관계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다. 인간은 삶이 유한한 이상 모든 사랑의 결말은 이별이다. 따라서 간절한 사랑을 경험한 이는 언젠가 아픔을 감내해야만 하다. 이 시의 화자는 “이별 이별 이별”이라고 반복적으로 읊조리면서도, “유랑의 슬픔”을 담담하게 곱씹는다. 절망의 탄식으로도 읽힐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 작품에는 힘찬 에너지가 담겨 있다. 석별의 아픔이 사랑의 필연적인 결말일 수도 있다면 가슴 아픈 이별에 대한 고백은 자신이 무언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사실에 대한 자신감 있는 설명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이별이 “죽음”에 비유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사랑과 이별의 관계는 삶과 죽음에 대응한다. 모든 삶에는 끝이 있다. 누구나 그 사실을 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인류 문화권에서는 죽음에 대한 사유를 터부시하는 관행이 있다. 죽음이 도래하리라는 사실은 삶을 허무하게 만든다는 방어기제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인용한 작품에서 화자는, 흡사 이별로 인한 고독을 받아들이듯, 죽음까지도 겸허히 수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인식은 김종철의 문학적 사유가 새로운 경지로 이르렀음을 암시한다. 이렇듯 첫 시집 『서울의 유서』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척박한 세상을 “죽음”에 비유했던 김종철은, 『오이도』에서 죽음이 삶과 조화되는 모습을 이미지로 포착하고 죽음을 비롯한 부정적인 것들 까지도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됐다. 이런 변화는 시집의 분위기에 도 영향을 끼쳤다. 『서울의 유서』에서 서울과 베트남으로 표상되는 세상을 강렬한 어조로 고발하는 작품들이 두드러졌다면, 『오이도』는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민중의 모습을 희망적으로 그려내고 소시민의 일

19) 김종철,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앞의 책, 153-154쪽.

상을 담담하게 옮겨낸 작품들이 늘어났다.

그런데 이 시집은 김종철의 죽음관이 변화했고 세상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늘어났음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지언정, 그 변화가 어떤 사유의 궤적에서 이뤄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증하지는 못했다. 이에 대한 사유는 세 번째 시집 『오늘이 그날이다』에서 더욱 정치하게 펼쳐진다.

4. 삶과 죽음의 현재적 내면화

김종철의 세 번째 시집 『오늘이 그날이다』에는 시간을 소재로 삼은 작품이 많다. 이 책의 제목부터 시간을 지칭하는 주어와 서술어를 합쳐 놓은 문장이다. “오늘”이 모월 모일로 표현될 수 있는 특정한 날짜라면, “그날”은 “나”의 선별에 의해 골라진 순간을 가리킨다. 심훈의 「그날이 오면」이 암시하듯, ‘그날’은 누군가의 염원을 담아서 고대하던 순간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다.²⁰⁾ 그런데 김종철이 “오늘이 그날이다”라는 작품을 쓰고 또한 이를 시집의 표제로 삼은 것은, 언제나 내일이 아닌 오늘을 특별한 순간으로 특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던 듯하다. 표제작을 살펴보자.

그렇다, 오늘이 그날이다/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슬퍼하고/눈물 짓는
그날이다/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받는 그날이다/오늘이 어저께의 어깨
를 뛰어넘고/내일의 문 앞에 당도했을 때/우리는 꿈만 꾸었었다/오늘이
그날임을 알지 못했다/나를 거뒀가는 그날인 줄을/내 낱알을 털어 골라
두는 그날인 줄을/나를 넣고 물을 부어 밥솥에 끓이는 그날인 줄을/나
를 손가락으로 떠먹으며 씹는/그날인 줄을 알지 못했다/그리하여 어떤

20) 가령 심훈의 시편 「그날이 오면」에서 ‘그날’은 화자가 염원하는 해방의 날을 의미이다.

이는 소리내어 울고/어떤 이는 술 마시며 욕질하고/어떤 이는 무릎 꿇고 연도憐悼하는 그날인 줄을//언제 우리가 오늘 이외의 다른 날을 살았더냐/어제서 없는 내일을 보려 하였더냐/어제는 오늘의 껌질이요 내일은 오늘의 오늘이다/모든 것이 오늘 함께/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오늘이 그날이다

— 「오늘이 그날이다」 부분

인용문에서 화자는 “오늘이 그날이다”란 전언을 반복한다. 화자에게 “오늘”은 “기도”를 하는 날이고 또한 “어떤 이는 소리내어 울고/어떤 이는 술마시며 욕질하”는 날이다. 기도, 읍소, 술주정은 인생이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 행동들이다. 통상 사람들은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기를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그 사건이 일어나는 날(가령 사랑이 결실을 맺은 날, 취직을 한 날)을 “그날”이라고 명명한다. 그런데 이 시편은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은 범속한 나날을 묘사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이 작품은 만족스럽지 않은 일상의 나날들까지도 특별한 “그날”로 느끼고 살아야 한다는 의지를 표현한다. 상기했듯 김종철은 『서울의 유서』에서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고, 『오이도』에 이르러 “죽음”으로 상징되는 현실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인용한 「오늘이 그날이다」는 그런 변화를 더욱 극대화시켜, 서글프고 우울한 일상적 “오늘”들을 특별한 “그날”로 인식하겠다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부정적 현실까지도 끌어안겠다는 발상이 꼭 허무주의라든가 순응주의로 귀착되는 것은 아니다. 이 작품은 철학자 하이데거가 “죽음을 향한 존재”로서 살아갈 것을 제안할 때 요청했던 자세를 형상화하고 있다.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죽음을 달갑게 받아들일 수 없다. 죽음은 삶을 끝내는 사건이고 생명의 연속성을 무너트리는 파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이 한 번은 죽지만, 그러나 당장은 아직 아니다”²¹⁾라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죽음을 회피하는 이들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죽음에 대한 인식은 한계에 맞닥트린 필멸자(必滅子)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준다.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삶을 하나의 총체로 수용 가능하다.

삶에 대한 총체적 인식은 주체적인 삶의 조건이다.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스스로 결정한 대로 살아간다는 뜻이다. 오늘날의 사회는 형식적 자유를 보장하지만 구성원들 개개인은 대부분 엇비슷한 인생을 살아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잘먹고 잘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가 엄존한다. 취직/결혼/출산 등등의 사회적 상례를 따르라는 관념 또한 팽배하다. 이런 규칙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거나 남들과 다르게 살려는 사람들은 얼마간의 피로와 고행을 감수해야만 하는 사회체계가 엄존한다. 또한 자신의 즉자적인 욕망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삶 또한 주체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외제차나 명품옷을 사고 싶다는 열망으로 노력하는 사람을 주체적이라고 하진 않는 법이다.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에만 매몰된다거나 혹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 따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경지로 나아간다.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재산과 목숨까지 포기했던 투사들을 떠올려 보라. 그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포섭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행동하게 된 것은, 자신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삶의 목적을 확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빼앗긴 조국을 되찾는 데 일조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믿으며, 그 사명을 기필코 이뤄내겠다는 책임감 또한 견지했을 확률이 높다. 이렇듯 삶을 하나의 총체로 파악하고 자신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이어지는 고유한 가능성을 의식하는 사람은 주체적 행위로 나아갈 권리를 가

21) 하이데거, 앞의 책, 342쪽.

진 셈이다.²²⁾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시간에 대한 관념을 바꿔야 한다. 근대 사회는 시간을 정량화한다. 매 순간을 모일 모일로 계산하고, 모든 시간은 균등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 문화가 팽배하다. 이런 관념을 가질 때 과거/현재/미래는 분절되어 인식된다. 하이데거는 이를 “통속적 시간 이념”이라고 비판한다.²³⁾ 그는 과거-현재-미래를 통합하여 “지금-시간(Jetzt-Zeit)”²⁴⁾으로 느낄 것을 제안했다. 앞서 언급한 독립운동가의 사례의 경우를 떠올려보자. 그는 ‘객관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사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전부 연결된 총체로 인식하면서 “나의 시간”을 정립한 셈이다.²⁵⁾ 「오늘이 그날이다」는 “나”의 삶을 이루는 순간들(과거와 미래)을 전부 현재적 “오늘”로 사유하며 총체적 인식에 다다르려는 시인의 문제의식이 드러난 노작이다.²⁶⁾ 따라서 이 시편의 선언적

- 22) 하이데거는 “본래적인 현재”를 살기 위해서는, 과거는 현재 속에서 이미 존재(既在)하는 것으로 보고, 장래의 일은 “선구적 결의”를 통해 직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마르틴 하이데거, 앞의 책, 442-487쪽. 박찬국,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읽기』, 세창출판사, 184-185쪽. 참고로 하이데거 본인은 이를 “양심”의 “부르심”에 응하는 과정으로 설명하는데, 이때의 “양심” 또한 통속적인 의미의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읽힐 여지가 있는 단어이기에 본고는 박찬국의 해설을 참조하여 설명을 전개했음을 밝혀둔다. 마르틴 하이데거, 앞의 책, 386쪽 참조.
- 23) 하이데거가 “죽음을 향한 존재”로서의 인식을 강조한 책의 제목이 『존재와 시간』이라는 사실은, 그가 시간에 관한 문제를 중요시했음을 방증한다.
- 24) 폴 리콕르, 김한식 역, 『시간과 이야기 3』, 문학과지성, 2004, 145쪽.
- 25) 레비나스에 따르면,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스스로를 존재자로 자기정립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에마뉘엘 레비나스, 서동욱 역, 『존재에서 존재자로』, 민음사, 2005, 145-163쪽.
- 26) 하이데거는 이렇게 썼다. “죽음에 부서지면서 자신의 현사실적인 ‘거기에’로 자신이 되던저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자만이, 다시 말해서 도래적이면서 똑같이 근원적으로 기재하며 있는 그런 존재자만이 상속된 가능성을 자기 자신에게 전수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내던져져 있음을 넘겨받고 “자신의 시간”을 위해서 순간적일 수 있다. 동시에 유한하기도 한 본래적인 시간성만이 운명과 같은 것을 만든다. 다시 말해서 본래적인 역사성을 가능하게 한다.”(하이데거, 앞의 책, 503쪽) 한편 죽음의 완결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하이데거의 입론을 비교적 쉬운 언어로 설명한 책은 다음과 같다. 박찬국,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제목 “오늘이 그날이다”는 자신의 모든 것을 현재로 투사시키겠다는 결의의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²⁷⁾

『오늘이 그날이다』는 이외에도 시간에 관한 사유를 풀어낸 작품을 다수 포함한다. 가령 “나”의 탄생과 임종의 순간을 만나는 모습을 묘사한 「만나는 법」은 과거와 미래를 끌어안아 “나의 시간”을 정립하겠다는 문제의식의 소산이다. 이때 시인은 일종의 ‘시간여행’을 하는 셈인데, 실제로 『오늘이 그날이다』에는 「시간여행」이라는 제목의 연작도 담겨 있다. 이 연작은, 여럿으로 포개진 듯 보이는 시간을 결국 하나의 총체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발상을 표현한 것으로 본고의 논지를 확증시켜 줄 실례가 될 만하다.²⁸⁾

앞서 필자는 죽음까지 포괄하여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관점이 주체적인 삶의 필요조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체적인 삶의 예시로 독립운동을 거명했는데, 물론 그토록 적극적으로 저항과 투쟁을 감행하는 인물들만 주체적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 핵심적인 것은, 자신이 회피하고 싶던 문제까지를 대면하고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유용하다는 사실이다. 김종철이 『오늘이 그날이다』를 출간한 이후 발표한 작품들은 그런 문제의식을 기저에 깔고 있다. 이 시집에서 시작된 ‘못’ 연작이 그 점을 방증한다. 연작의 첫 번째 작품 「못에 대하여 1-고해성사」는 다음과 같다.

못을 뽐습니다/휘어진 못을 뽐는 것은/여간 어렵지 않습니다/못이 뽐
혀져 나온 자리는/여간 흉하지 않습니다/오늘도 성당에서/아내와 함께

강독』, 그린비, 2014, 326-331쪽.

27) 이승원, 앞의 책, 93쪽.

28) 김종철이 시간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점을 방증하는 또 하나의 정황이 있다. 그의 천주교 세례명은 아우구스티노인데, 철학사에서 이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었고, 그는 시간에 대해서 고찰한 사상가이기도 하다. 위의 책, 82-83쪽.

고백성사를 하였습니다/못자국이 유난히 많은 남편의 가슴을/아내는 못
본 채 하였습니다/나는 더욱 부끄러웠습니다/아직도 뽑아내지 않은 못
하나가/정말 어쩔 수 없이 숨겨 둔 못대가리 하나가/쏘옥 고개를 내밀
었기 때문입니다

「못에 대하여1-고백성사」 원문²⁹⁾

많은 논자가 지적했듯, ‘못’은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부품
중 하나이고, 또한 성경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한 예수의 상징이다.³⁰⁾ 인
용작에서 화자는 자신의 몸에 ‘못’이 박혔다고 하는데, 이는 속(俗)스럽
게 살아가는 필부로서의 자기 존재를 긍정한다는 의미이거나 혹은 선지
자 예수를 궁지에 빠트린 부정적인 세상을 환기하는 표현일 것이다. 이
런 인식을 함축한 인용작은 다양한 형이상학적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³¹⁾ 그런데 이 작품에 대한 의미부여보다 앞서서 해야 할 일은, 이
렇게 자신의 궁핍한 처지 내지는 불편한 현실을 겹겹히 인정하는 작품
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총체적 인식 및 사색의 여지를 마련해준다는 점
일 것이다.

5. 결론

본고는 김중철 시인의 초기 시세계를 관통하는 핵심 기제인 죽음관의
변모 양상을 고찰했다. 하이데거의 ‘죽음을 향한 존재(Sein-zum-Tode)’

29) 김중철, 앞의 책, 207쪽.

30) 이승원, 앞의 책.

31) 기존의 논고들은 이런 태도를 견지한 ‘못’ 연작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시도
했다. 가령 김재홍은 ‘못’에 빙의한 이 연작이 실존적/개인적 층위, 사회적/역사
적 층위, 신성사적 층위를 포괄적으로 형상화한다고 지적했고, 장경렬은 ‘못’이
민중, 인간에게 상처를 주는 대상, 타인과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대상, 의식을
각성시키는 매개 등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김재홍, 앞의
책, 75쪽; 장경렬, 앞의 책, 94-115쪽.

개념을 차용하여, 시인이 실존적 응전 방식을 통시적으로 규명한 본고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김중철의 첫 시집 『서울의 유서』에서 죽음은 ‘불모적 현실의 상징’을 표상한다. 이때 시인은 근대화 과정인 서울과 전쟁으로 황폐화된 베트남을 ‘병든 신체’ 혹은 ‘임종 앞의 환자’로 형상화하며, 죽음을 생명력과 생산성이 거세된 부정적 종말로 인식했다. 이 시집은 절대적 피안을 갈망하면서도 참담한 현실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 세계 인식을 반영한다.

두 번째 시집 『오이도』에 이르러 죽음은 삶의 이면이자 조화의 대상으로 전이된다. 이때 시인은 삶과 죽음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바다와 살아 있는 바다”가 공존하듯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자각을 드러낸다. 그는 사랑과 이별, 탄생과 소멸을 자연스러운 유랑의 과정으로 인식하며,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삶의 유한성에 대한 성찰을 시도했다.

세 번째 시집 『오늘이 그날이다』에서 시인은 죽음을 현재로 내면화함으로써 주체적 실존을 완성한다. 과거와 미래를 ‘지금-시간(Jetzt-Zeit)’으로 통합한 시적 화자는, 고통과 슬픔이 수반된 일상의 나날을 온전히 껴안는 태도를 보여준다. 특히 ‘못’ 연작은 부정적 현실과 자신의 결핍을 회피하지 않고 정체성의 일부로 수용하려는 실존적 결단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김중철의 시에서 죽음은 단순히 생물학적 종언을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타성적인 ‘세인(Das man)’의 삶을 거부하고, 자신의 유한성을 직시함으로써 ‘본래적 자아’를 구축해 나가는 실존적 투쟁의 표징이다. 비극적 현실 고발에서 시작된 그의 시적 여정은 죽음을 삶의 내부로 정초시키는 과정을 거쳐, 비로소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본고는 일상적 현실에 천착하면서도 형이상학적 사유를 시도한 김중

철의 작품을 재고하고자 했다. 다만 김중철이 하이데거의 철학 내지는 시간에 관한 철학을 참조했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하지는 못했고, 그의 초기 작품에서 발아한 문제의식이 후기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세심하게 분석하지는 못했다. 향후 김중철 시인의 후기 시편에 나타난 ‘못의 사회학’과 종교적 승화 과정을 연구하는 데 기초적인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렇듯 독자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창작을 이어갔던 작가들에 대한 사변적 연구가 다양한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김종철, 『김종철 시전집』, 문학수첩, 2016

2. 단행본

김재홍, 『못의 사제, 김종철 시인』, 문학수첩, 2020.

김종희, 『삶과 못과 시의 변주곡』, 문학수첩, 2023.

박찬국,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강독』, 그린비, 2014.

유성호, 『김종철 시의 매혹』, 문학수첩, 2024.

이승원, 『못을 통한 존재탐구의 긴 여정』, 문학수첩, 2022.

장경렬, 『김종철 시인의 ‘언어 학교’를 찾아서』, 문학수첩, 2021.

에마뉘엘 레비나스, 서동욱 역, 『존재에서 존재자로』, 민음사, 2005.

폴 리콥르, 김한식 역, 『시간과 이야기 3』, 문학과지성, 2004.

마르틴 하이데거, 이기상 역, 『존재와 시간』, 까치글방, 1998.

3. 논문

김재홍, 「김종철 초기 시의가톨릭 세계관에 대한 일고찰 - 「죽음의 둔주곡」과 「떠도는 섬」을 중심으로 -」, 『동아시아문화연구』 86권,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21, 59-84쪽.

박호영, 「패로디를 통한 ‘성’ 문제의 탐구」, 『시와 시학』 22권, 시와시학사, 1996, 161-167쪽.

허혜정, 「김종철의 시세계와 ‘등신불’의 상징」, 『불교문예연구』 12권, 불교문예연구소, 2019, 15-40쪽.

<Abstract>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Death
in the Early Poetry of Kim Jong-chul

Jeon, Cheol-Hui*

This study examines the transformation of the perception of death, a core mechanism permeating the early poetic world of Kim Jong-chul. Utilizing Heidegger's concept of "Being-towards-death" (Sein-zum-Tode) as an analytical framework, this research diachronically identifies the poet's reality and his corresponding modes of existential respons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In Kim's first poetry collection, *The Will of Seoul*, death functions as a "symbol of sterile reality." The poet portrays Seoul, caught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and Vietnam, devastated by war, as a "diseased body" or a "patient on their deathbed," perceiving death as a negative end stripped of vitality and productivity. This collection reflects the tragic worldview of the early poet, who longed for an absolute beyond yet could not help but be frustrated by a wretched reality. Conversely, in his second collection, *Oido*, death shifts into the underside of life and an object of harmony. The poet realizes that life and death are not severed but organically linked, much like the coexistence of a "dead sea and a living sea." During this period, the poet accepts love and separation, birth and extinction as a natural process of wandering, overcoming the fear of death to reflect upon the finitude of life. In the third collection, *Today is the Day*, the poet

* Daejin University.

completes his subjective existence by internalizing death into the present. Integrating the past and future into the “now-time” (Jetzt-Zeit), the poetic speaker demonstrates an attitude of fully embracing daily life despite its inherent pain and sorrow. In particular, the emergence of the “Nail” series can be seen as the product of an existential resolve to accept negative reality and personal deficiency as part of one's identity rather than evading them. In short, death in Kim Jong-chul's poetry is not merely a biological conclusion. It is a sign of an existential struggle to reject the inertial life of the “They” (Das Man) and to construct an “authentic self” by confronting one's own finitude. His poetic journey, which began as an indictment of a tragic reality, establishes his identity as a subjective human being through the process of grounding death within the interior of life.

Key Words: Kim Jong-chul, Death, Heidegger, Lyricism, Existence.

■ 논문접수 : 2026년 03월 29일
■ 심사완료 : 2026년 04월 10일
■ 게재확정 : 2026년 04월 10일